北 ICBM…미국의 진짜 걱정 '중·러 공조'

트럼프 '초강경 조치' 예고
시진핑·푸틴 '대화'에 무게
안보리 회의서 주도권 경쟁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선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ICBM으로 공식 확인하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존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추가로 북한을 더 제재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러 양국은 그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어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최를 요구해 한국시간으로 6일 새벽 '북한 ICBM 제재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미국 측과 중·러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의사봉을 쥐고 대화에 무게를 실으려 할 것이고, 미국 측은 강력한 추가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일단 강력한 안보리 추가제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와는 별도로 북한을 상대로 독자제재를 하는 한편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를 할 수도 있어 미중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이미 최근 중국을 최악인 신매매국으로 지정하고 대만에의 첨단무기 판매, 단둥(丹東)은행 제재를 결정한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금융제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 간 회동을 통해 '공조'를 더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발표 직후인 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에 강한 채찍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 성명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점증하는 문제를 우려하며 모든 관련국은 최대한의 냉정과 인내를 유지하고 긴장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효율적 방안"이라면서 "양국은 다른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중러의 노력에 반응해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호소한다"고 주문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핵실험과 더불어 ICBM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으로 규정했던 미국은 초강경 조치에 나서겠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해 분노를 표시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러시아에는 북한의 벌목공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중국은 북한에 여러 방면의 도움을 주고 있어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6일 새벽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실행이라는 초강력 제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같은 상임이사국인 중러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제재를 논의할 안보리 긴급회의를 주재할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지금처럼 긴장이 계속 고조되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면서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며 대화 해법을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전문가들, 북 미사일 ICBM 인정

빅터 차 "북한 능력 예상 넘어섰다"

빅터 차

북한은 4일 '화성 14호' 미사일 발사를 통해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획기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평가했다.

WP는 정보기관들이 미사일의 궤적을 정밀 계산한 결과 북한이 결국 서방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수년 빨리 ICBM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북한의 눈부신 성공은 미 관리들에게 반갑지 않은 충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미사일의 사거리가 3400마일(약 5440㎞)을 넘을 경우 ICBM으로 분류되는데 화성 14호는 이날 지구 상공 2802㎞까지 도달한 후 933㎞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화성 14호가 통상적인 궤도를 비행했을 경우 4000 마일(약 6400㎞)을 너끈히 날아 미 알래스카 전역을 사정거리 내에 포함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연구센터(CNS) 동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는 중대사건이며, 이는 'ICBM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ICBM"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또 "화성 14호의 최대사거리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해 실제 사거리가 그 이상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여과학자모임(UCS)의 데이비드 라이트 선임연구원도 화성 14호의 사거리를 4100마일(약 6560㎞)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 본토 48개 주나 하와이 주요 섬들에 도달하기에는 불충분하나 알래스카는 전 지역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북한이 언제쯤 장거리에 장착할 만큼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나 당초 일반의 예상보다 빨리 ICBM 개발에 성공한 만큼 미 본토 도달과 탄두 소형화라는 두 가지 목표도 이제 북한 핵 개발의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지난 5년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중대하고 빠른 진전을 보여왔다면서 "그들의 능력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또 화성 14호가 이전과는 달리 북한이 독자 개발한 고유 엔진을 장착한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지난 3월 18일 신형 엔진 개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세계가 조만간 그것의 의미를 보게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다.

루이스는 화성 14호가 "고물 소련 엔진을 복제하거나 조합한 것이 아닌 '진품'"이라면서 북한이 이제는 소련의 낡은 기술을 바탕으로 ICBM용 새로운 엔진 개발에 성공했음을 비췄다. 이전 북한 미사일 대부분은 소련 시대 낡은 모델을 개조해 사용했었다.

북한이 또 화성 14호를 지구 상공 높은 고도로 쏘아 올린 것은 기밀 유지 차원의 목적도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사용 후 엔진을 동해 깊숙이 가라앉혀 미국이나 일본이 이를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日 방위성, 북한 미사일 낙하전 첫 언론 공개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일본 방위성이 사상 처음으로 미사일이 낙하하기 전에 발사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4일 오전 9시 51분에 언론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9시 39분에서 12분 지난 시점이다.

이에 따라 NHK와 교도통신은 곧바로 긴급 기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전했고, 미사일은 약 30분 뒤 동해상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성 간부는 "북한이 사전에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낙하 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조기에 포착한 것은 한미일간 정보공유에 힘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군의 조기경계위성, 한국군 레이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등이 포착해 방향과 각도, 속도 등의 정보를 분석해 낙하지점을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정보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공유협정(G→SOMIA)에 의해 3국간에 공유된다.

일본은 자국 영토나 영해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통해 발사 정보를 전국으로 전파한다.

이번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낙하하기 30분 전에 발표했지만 내용이 불명확하고 낙하 지점도 모호해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실제 방위성이 4일 처음으로 제공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는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EEZ 내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였다.

이에 동해상 일본의 EEZ 내에 있던 선박들은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10분 만에 72개…핫도그 먹기 챔피언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니아일랜드의 '네이선스 핫도그 먹기대회'에서 조이 체스트넛(33)이 46개째 핫도그를 먹는 모습. 그는 이날 10분 안에 모두 72개 핫도그를 먹어치워 우승을 차지했다. 별명이 '조스'인 체스트넛은 이번 우승으로 지난해에 이어 2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급 매"

산수유/벚꽃축제,전지훈련,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융자 8–10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